



웃음이 심장병 막아준다

미(美) 메릴랜드대학 메디컬 센터 예방 심장학 센터의 마이클 밀러 박사는 최근 미국심장학회(AHA) 연례학술회의에서 웃음이 심장병을 막아준다고 발표했다. 웃음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심장병 환자들이 웃음을 잃게 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심장병 병력이 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 각각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이 나타났다. 밀러 박사는 웃음이 어떤 이유로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혈관내부의 보호막인 내피(內皮)를 손상시킨다고 밝혔다. 혈관의 내피가 손상되면 일련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심장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 저지방 식사와 함께 재미있는 비디옌 보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생활습관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응답성분 UDCA 다이옥신 독성 완화

응답성분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이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의 독성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약대 위생약학 연구실 정규혁 교수와 대웅제약 연구팀은 최근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다이옥신을 단독 투여했고, 나머지 그룹에는 다이옥신 및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을 병용투여했다. 그 결과, 한쪽은 몸무게가 크게 줄고 장기가 위축돼 35일만에 모두 죽었다. 그러나 병용투여군은 장기와 몸무게 감소가 줄었고, 사망일도 51일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이옥신에 노출돼 체중감소·성장억제·간독성·남성호르몬 감소 등 증상을 보인 쥐들에게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을 투여한 결과 점차 기능이 회복되면서 임파구 및 헤마토크리트치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됐다. 정교수는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이 간에 축적된 독성을 제거하고, 내담즙 유량을 증가시켜 독성물질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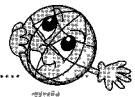
보건관련 인터넷 '닷 헬스' 통합 추진

전 세계 각국의 각종 보건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온라인 주소를 갖게 될 전망이다. WHO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만 여 개에 달하는 보건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들의 난립을 막고 보건정보의 신속한 접근과 질적 향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새 온라인 부가 주소인 '닷헬스(.health)'의 신설을 추진중이다. 국제 온라인

인주소 관리 위원회인 '인터넷 이름, 숫자 할당공사(ICANN)'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회의를 열고 WHO의 '닷헬스' 신설 제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 통과가 될 경우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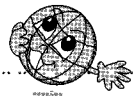
'닷헬스' 신설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요안 제노바기스 박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보건정보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보건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WHO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WHO는 이에 따라 닷헬스의 주관자로 승인을 받게 되면 도메인 소유주들에 대한 윤리기준과 보건정보의 수준 등을 규정하는 원칙을 마련,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 정부와 의학협회, 소비자단체, 보건산업 관계자들과 규칙 제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포경수술 반대운동' 美 NGO 인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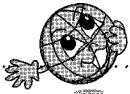
국내에서 포경 수술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사와 교수들이 미국 비정부기구(NGO)의 인권상을 받게 됐다. 중앙대의대 김세철(金世哲 54 비뇨기과) 교수와 서울대 김대식(金大植·37·물리학과) 교수, 바이오벤처기업 (주)젠덱스 방명걸(方明杰 39·의학박사) 대표이사는 포경 수술 반대운동을 벌인 공로로 유엔에 등록된 미국 NGO인 국제포경수술정보교육센터(NOCIRC)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수여되는 인권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90년대 부터 국내에서 포경 수술 반대 운동을 벌여온 김교수 등은 최근 전문 웹사이트(www.pop119.com)를 운영하는 한편 초중고 교사 등에게 포경수술에 관한 교육을 하고 관련 논문을 국제학계에 발표해 한국의 비정상적인 포경 수술 실태를 세계에 알려왔다.

동성애 유전적 결정 경향 높아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의 상당 부분이 유전적으로 결정됨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BC방송 인터넷 뉴스는 16일 최근 미 정신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를 인용, 쌍둥이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 연구에서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 동성애자가 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보고서를 낸 버지니아의대 케네스 켄들러 교수는 7백94쌍의 쌍둥이를 조사했다. 여기에는 3백24쌍의 일란성 쌍둥이가 포함됐고 그 중 19쌍 최소한 둘 중 한명이 동성애자였다. 그리고 이 19쌍 중에서 6쌍은 쌍둥이 중 양쪽 모두가 동성애자였다. 일란성 쌍둥이 중 한쪽이 동성애자일 경우에 다른 한쪽이 동성애자일 확률이 31.6%인 것이다. 이에 비해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같은 성(性)일 경우 13.3%, 다른 성일 경우 8.3%로 상대적으로 둘다 동성애자인 비율이 낮았다 이 결과는

같은 쌍둥이인 경우 이란성에 비해 유전자 구성이 더욱 유사한 일란성이 두 쪽 모두 동성 애자일 확률이 높아 동성에 성향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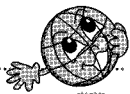


서울대 최진호 교수 항암제 효과 20배 높이는 방법 밝혀

항암제를 전달체 없이 주사로 투여해온 기존의 치료법보다 무기생체혼합물질을 치료 유전자의 전달체로 이용하면 효과가 최대 20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이 서울대 화학과 최진호 교수의 연구로 밝혀졌다.

최 교수는 23일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등 기존의 무기물질을 나노미터(nm·10의 마이너스 9승m) 단위로 분해해 생체물질과 합성시켜 만든 전달체로 치료유전자를 몸 속에 투입할 경우 현재 항암 치료에 쓰이는 주사제보다 많게는 20배 가까이 효과가 높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이 독일의 국제적인 화학학술지인 ‘앙게바트 케미스트리’ 11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백혈병이나 각종 암을 치료할 때 쓰이는 주사제는 치료물질을 몸속에 그대로 투입하거나, 바이러스 고분자 유기물질을 전달체로 써 왔다. 치료물질을 몸에 투입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낮아 다량 투입을 피할 수 없었고,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쓸 경우 염증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최 교수는 “무기생체혼합물질을 이용하면 염증·돌연변이와 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세포내 침투효과도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암 뿐 아니라 유전자 치료법을 이용한 모든 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며 “임상실험을 거친 뒤 이르면 2010년쯤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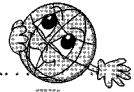


아스피린 장기복용자 위 또는 장출혈 위험 높아

아스피린을 장기복용하는 사람은 위 또는 장출혈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포드에 있는 레드클립 의료원의 시너 데리 박사는 의학전문지 “브리티시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24건의 연구 보고서(조사 대상 6만6천명)를 종합분석한 결과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는 사람은 아스피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위출혈이나 장출혈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심장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스피린을 처방한다. 아스피린이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아스피린은 하루 3백mg이상 복용하면 위 또는 장출혈의 부작용 위험이 있지만 복용단위를

75mg이하로 낮추면 부작용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데리 박사는 “복용단위를 낮추거나 아스피린을 흡수시간 조절형으로 바꿀 경우 내출혈 위험이 줄어든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배 피우면 청력 손상된다



담배를 피우면 청력이 손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오사카 의과 대학의 니카니시 노리유키 박사는 “직업 환경의학” 최신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사람에 비해 청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니카니시 박사는 지난 94~99년 사이에 일본 대기업에서 근무한 30~59세의 남자 1천5백54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하루 피우는 담배의 양이 많을수록, 담배를 피운 기간이 길수록 청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니카니시 박사에 따르면 하루 한 갑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청력손상 위험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또 담배를 하루 한 갑씩 40년 이상 피운 사람은 청력손상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흡연자가 청력손상 위험이 큰 것은 “흡연이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내이의 달팽이처럼 생긴 부위인 와우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니카니시 박사는 말했다

배아간(幹)세포서 심근세포 배양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배아간(幹)세포에서 심근(心筋)세포를 배양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해 심근경색 등 각종 심장병을 퇴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마리아병원 기초의학연구소 박세필(朴世必) 소장은 6일 “사람의 배아간세포가 담겨 있는 배양접시에 특수 성장인자를 주입, 심근세포로 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역결핍된 실험용 쥐에 배아간세포를 주입해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로 분화하는 것은 간접 확인한 적이 있으나, 배양조건을 갖춘 접시 안에서 특정 장기를 배양해낸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배아간세포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시작해 간(肝)이나 폐, 심장, 근육 등 특정 장기로 자랄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원시세포를 말한다. 박 교수는 “심장병으로 조직 일부가 망가진 환자에게 심근세포를 이식해 주면 조직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배양조건만 잘 맞춰주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난치병 환자에게 필요한 세포와 장기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교 및 사회단체는 인간배아를 이용한 실험에 반대하고 있어 윤리 문제가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